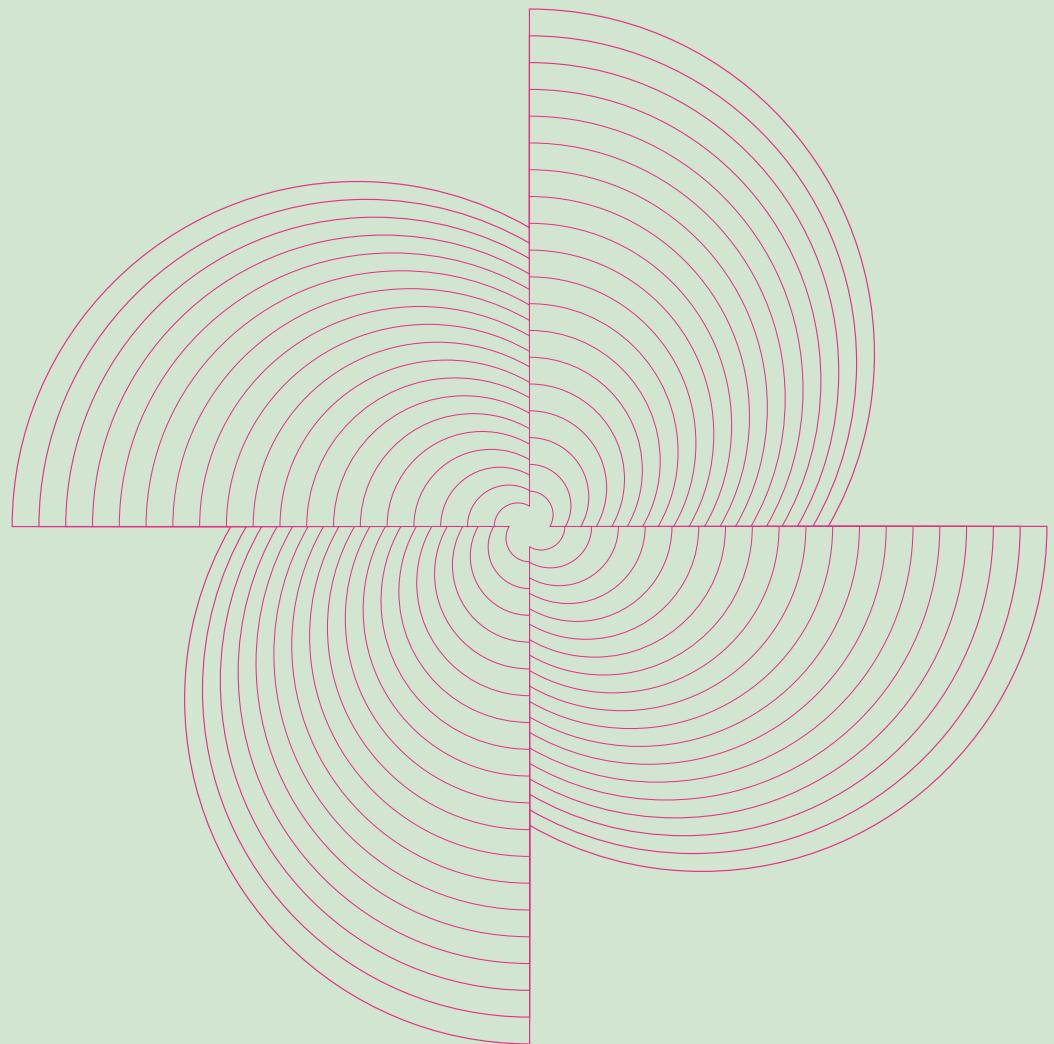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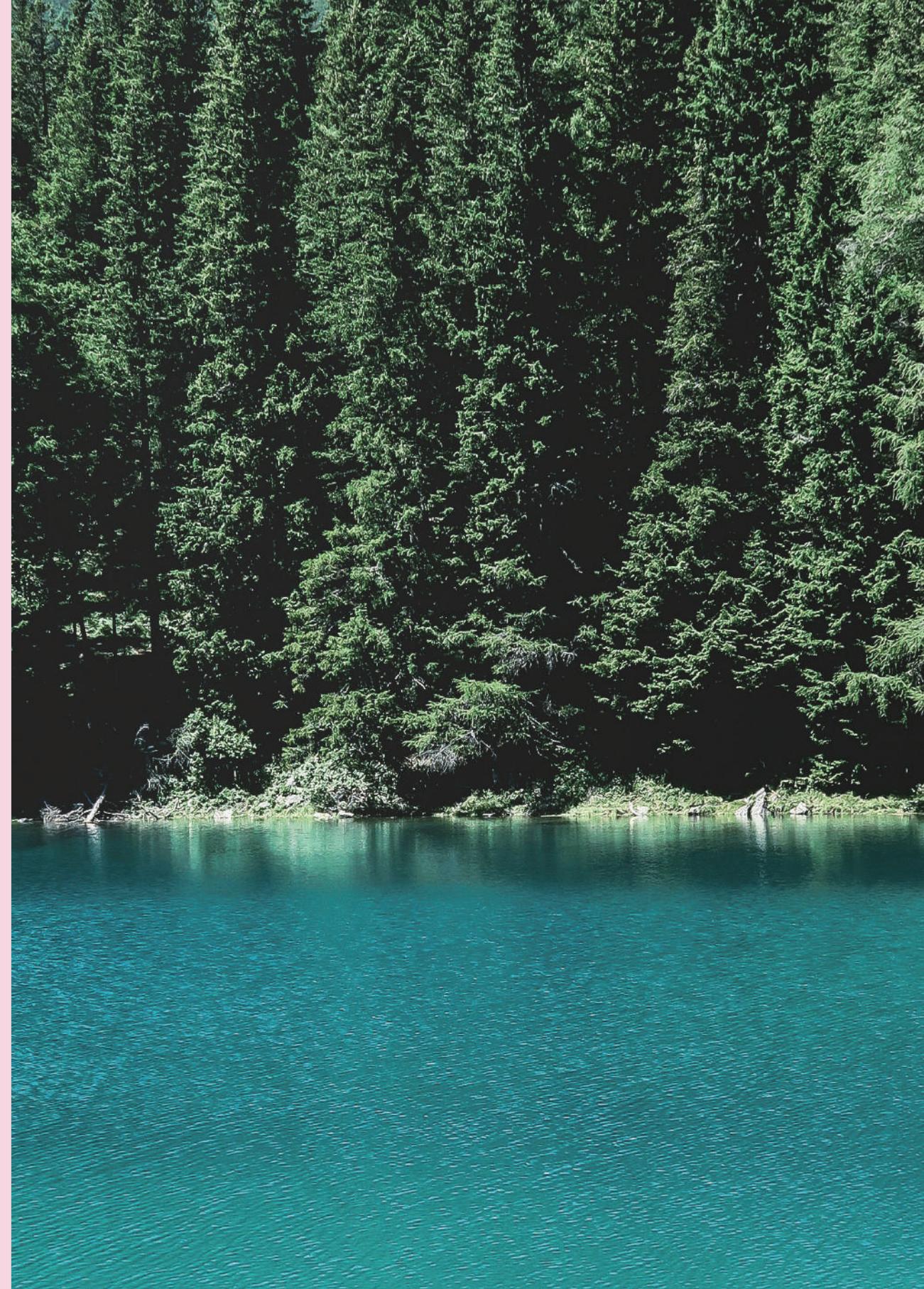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선순환



底  
持  
て  
お  
う  
れ  
  
持  
す  
る  
う  
れ



# CONTENTS

416

2025 03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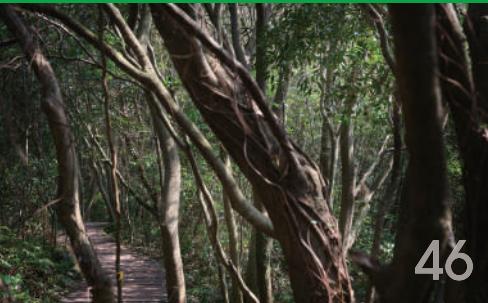
12



18



28



46

세아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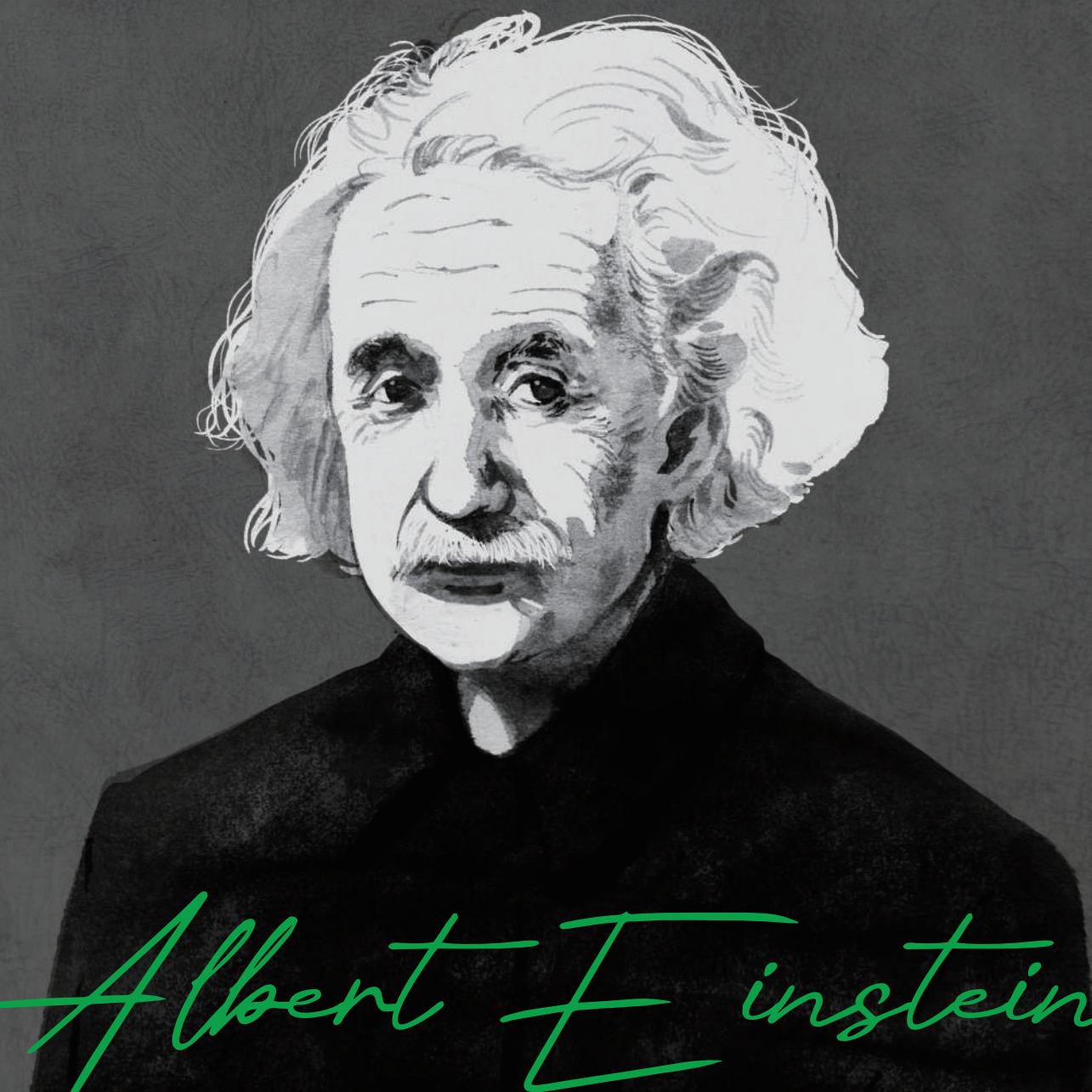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 발행일 2025년 4월 20일(통권 416호)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발행인 김수호 사진 Studio KENN  
발행처 세아홀딩스 ISSN 2636-178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06 세아**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08 세상**  
철을 향한 인류의 여정 그리고 미래
- 12 세아인**  
지구와 세아씨엠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 세아씨엠 안전환경팀 박영신 팀장, 한병호 조장, 박주현 사원
- 18 뉴스룸 1**  
봄의 문을 두드리는 오페라 선율  
– 2025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 24 뉴스룸 2**  
세아홀딩스, 국내 최초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
- 26 뉴스룸 3**  
'나눔세아'가 심는 새 희망의 씨앗
- 28 함께의 가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석유사업 블루오션을 개척하다  
– 세아제강 업적상 은상 수상팀
- 34 부개의 발견**  
나를 들여다보는 대련의 힘  
– 세아창원특수강 PT팀 전재현 대리
- 38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달콤쌉싸름한 마성의 맛  
– 달고나
- 42 세계 속 세아**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세아윈드

SéAH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한 문장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그는  
우주가 단순한 우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다.”라는 말은  
과학 문명의 발전이 자연 훼손의 결과로 이어진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과학의 본질을 잊은 채, 오직 인류의 풍요만을 좇은 발전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현세대는 그 과오를 씻기 위해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연을 덮고 일어서는 발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을 배려하며 이루는 발전.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희미해지거나 변색되지 않기를 염원해 본다.

# 철을 향한 인류의 여정 그리고 미래

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HUMANS AND FIRE

### 인류와 불

지금까지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은 대부분 동굴에서 발견됐다. 박물관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이미지는 대부분 동굴 속 생활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실 동굴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니다. 동굴은 비바람이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이상적인 주거지였지만, 인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 맹수 또한 동굴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런 대비 없이 동굴에서 지냈다면,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들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동굴은 그 지역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고고학자인 C.K. 브레인은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과거 고양잇과 맹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잡아먹고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데 더 위 지층에서는 동굴의 주인이었던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주거 흔적이 확인된다. 동굴의 주인이 맹수에서 인류로 바뀐 것이다. 이 동굴의 유적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그는 「Hunters or Hunted?」(사냥꾼인가 사냥감인가?)를 집필하며, 인류가 생태계 정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로 '불의 사용'을 꼽았다. 이렇게 불을 사용하면서 최고의 주거지를 차지하게 된 인류는 이후 동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구석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 도 기



### 불과 재료: 첫 번째 재료 혁명 - 토기

인류는 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서 생태계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재료의 발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자연 상태의 돌이나 뼈 등을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가공해서 재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자원을 재료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고, 특히 좋은 품질의 재료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했다.

인류가 불을 이용해 처음 만든 인공 재료는 토기다. 아마 불 주변의 흙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는 현상을 보고 착안해,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만 년 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토기 제작이 본격화됐고, 이는 농업이나 목축이 시작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유적들을 분석해보면 농경 사회로의 전환과 토기 제작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기의 등장이 곧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대표적인 토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벗살무늬 토기이다. 그리고 이 토기 문명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유럽에서도 약 1~2천 년 후 나타난다. 유라시아 대륙의 넓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확산은 벗살무늬 토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의 이동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점점 불을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했고, 처음에는 열린 불에서 토기를 만들다가 가마를 활용해 도기 만들기 시작했다. 가마를 통해 800도 이상의 고온을 달랠 수 있게 된 인류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었다.

### 불과 재료: 두 번째 재료 혁명 – 청동

불의 온도가 높아지자 인류는 금속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인류가 최초로 구리를 제련할 수 있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리 제련에 처음 사용된 광석인 적동광( $Cu_2O$ )을 녹이기 위해서는 최소 8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아마도 우연히 노출된 적동광이 산불을 통해 구리로 제련되는 모습을 보고, 인류가 이를 따라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속은 석기에 비해 강도가 훨씬 높아 도구로서의 활용도가 커으며, 인류는 여러 합금 실험을 거쳐 주석을 첨가한 청동을 만들어냈다. 청동은 돌보다 3배 이상 단단해, 당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데 있어 획기적인 도구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재활용 가능성이다. 청동 도구는 망가지더라도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도구의 소유권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됐다. 금속은 가공 방법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며 복잡한 형상도 구현할 수 있어, 청동기 시대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문명을 영위할 수 있었다.



### 청 동

# 철 | 강

## 불과 재료: 세 번째 재료 혁명 – 철

인류는 청동을 사용해 매우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고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점점 자원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초기 청동 문명이 꽃피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적동광이 고갈됐고, 이후 산화물 계열의 구리 광석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산화물 계열의 구리 광산마저 고갈되자 황화물 계열의 구리 광석을 써야 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배소 방법을 찾으면서 황화물 광석인 **황동광(CuFeS<sub>2</sub>)**을 사용해 구리를 제련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 황동광의 사용이 철 제련 기술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철기 시대 이전에도 인류는 철을 사용했다. 다만 이 시기에 사용된 철은 운석으로 날아온 운철이었고, ‘iron’이라는 단어도 하늘에서 온 금속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다. 철을 제련하려 면 높은 온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초기까지는 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황동광을 이용한 구리 제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련로의 온도가 점차 상승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련로 온도가 12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는 철 성분이 슬래그로 남아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의 온도가 1200도를 넘어가면서 일부 철이 환원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온도에서도 철은 슬래그와 결합된 해면철 형태로 남아 분리해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후 불을 다루는 기술과 연료의 발전으로 제련로의 온도가 1300도 이상 오르게 되면서, 슬래그의 유동성이 향상되고 철이 분리돼 얻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기는 청동 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었고, 청동의 품질 역시 매우 뛰어났다. 반면, 해면철 형태의 철을 가공하는 일은 까다로웠기 때문에 철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청동의 자원 문제가 철기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구리를 청동으로 사용하려면 다량의 주석이 필요한데, 주석은 당시에도 희귀한 자원이었고, 주요 제국들은 주석 광산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하지만 한정된 주석 생산량으로는 늘어난 인구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인류를 철의 시대로 이끌게 된 것이다.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가공도 어렵다. 그럼에도 철의 사용은 인류 문명을 또 다른 단계로 이끌었다. 우선 철은 강도가 매우 뛰어나 청동기 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의 또 다른 장점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자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던 청동기 시대와 달리, 철기 시대는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문명의 수요를 충족하며 발전 할 수 있었다.

특히 18세기 들어 강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고층 건물과 대형 선박, 대규모 운송 수단과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문명의 풍경이 철을 통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문명을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철강이 필요하다.

철을 포함한 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미래의 재료

철강은 인류 문명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재료이며, 철강 산업은 이를 가능하게 만든 기반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단체나 여러 정부가 철강 산업을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의 재료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철강은 앞으로도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재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 철강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은 환경적 측면에서 다른 재료보다 훨씬 우수하다.

무엇보다 철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금속이다. 이산화탄소는 재료 생산 시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례해 발생하는데, 철강은 1kg 생산에 약 30M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면 철강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금속 재료로 구리는 1kg 생산에 80MJ, 알루미늄은 200MJ, 티타늄은 무려 800MJ가 필요하다. 재료별 비강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철강은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고 그 생산량이 지금의 철강 수준에 도달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철을 포함한 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철은 6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구조 재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재활용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철은 신규 제련의 40% 정도 에너지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로 적극 활용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인류가 보유한 여러 광물 중 철은 가장 풍부한 자원이다.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다.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철은 앞으로도 인류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재료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

## 지구와 세아씨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아씨엠 안전환경팀  
박영신 팀장, 한병호 조장, 박주현 사원

한때는 경제 성장과 삶의 풍요를 위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성장과 친환경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진 지금, 이는 무책임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가치만을 맹목적으로 좇은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으로 배운 인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실천으로 이끄는 전담 조직의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 세아씨엠 안전환경팀을 만나 기업과 환경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정을 들어봤다.



### 세아씨엠의 '친환경' 리더

세아씨엠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안전·환경·보건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선에 있는 조직이 바로 세아씨엠 안전환경팀이다. '친환경 경쟁력 확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산업재해 제로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들의 주요 임무는 친환경 제조시설 운영과 친환경 제품 생산 지원으로 환경·안전 부문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안전·환경·보건 의식입니다. 이를 높여 세아씨엠이 사회공동체 발전에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팀장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기업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친환경 제조와 제품이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는 회사 경영이념과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한다.

그 노력의 결실로 세아씨엠은 2023년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을 포함한 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 EPD는 제품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수치화해 공개하는 인증제도로, GI(아연도금강판), GL(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PPAL(알루미늄컬러강판), PPGI(컬러강판), PPGL(컬러강판) 등 주요 생산 제품군이 국제 권위의 IVL 스웨덴 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제 인증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안전·환경·보건  
의식입니다.**



받은 것이다. 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포제 등 원자재를 친환경으로 전환한 결과다. 특히 안전환경팀은 제품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공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화해 평가하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했다.

"다양한 제품과 건축물,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아씨엠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세아씨엠의 제품을 사용하는 가전, 건설 등 수요 산업의 ESG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병호 조장은 EPD 인증 취득의 의의를 설명하며, 전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EPD 인증 획득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덧붙였다.

### 뚜렷한 성과, 일상화를 위한 노력

세아씨엠은 지난해 말,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3CCL 라인 내 LNG를 사용하는 산화설비(RTO)에 폐열회수보일러 시스템을 도입했다. 폐열을 활용해 스텝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세아씨엠은 염산처리를 통해 철판부식을 제거한 뒤, 100도씨 이상의 물로 이를 세척하고 압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기존에는 물을 데우기 위해 LNG 보일러를 사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NOx(질소산화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박영신 팀장은 "NOx 배출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다"며,



“현재 검토 가능한 라인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폐열회수보일러 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환경팀은 임직원의 의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아제강지주와 연계해 폐전지·폐가전 수거 캠페인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상 환경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회사 밖’ 일상에서도 스스로 친환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기 및 사진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기업’ 세아씨엠을 향해

세아씨엠의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안전환경팀 구성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막내 박주현 사원은 임직원 및 청소 근무자들과 함께한 사내 자원순환 캠페인을 꼽았다. “공장동 내 17개소에 분리수거함을 비치해, 연간 약 4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100,440kg/CO<sub>2</sub>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냈다”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안전환경팀의 사명감을 실감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세아씨엠 임직원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전환경팀의 사명이다. 이들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안전환경팀은 향후 저탄소 인증과 녹색건축인증(G-SEED) 등 다양한 친환경 인증을 추진해, 가전·건설 등 수요 산업의 ESG 경영에 더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아씨엠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적 규범과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박영신 팀장은 “세아씨엠 전 제품이 개발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아씨엠이 명실상부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안전환경팀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들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그 여정에는 수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현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다. 안전환경팀은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모든 단계에서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 Dvořák  
**RUSALKA**



**봄의 문을 두드리는  
오페라 선율**

2025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지난 3월 14일 저녁, 꽃샘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가 무색할 만큼 서울 예술의전당 인근 거리는 금요일의 여유를 즐기는 가벼운 웃차림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반가운 봄기운 속에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의 발걸음도 한층 여유로웠다. 수준 높은 오페라 작품으로 깊은 감동을 전한 '2025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현장을 담아본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겪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아름다운 음악과  
서정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



###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찾아온 2025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오랜 시간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리며 2013년 설립됐다. 예술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어받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학술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며, 예술가들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는 대중에게 오페라를 친숙하게 소개하고, 후원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왔다. 해외 유명 오페라 스타를 초청해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엄선된 작품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온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가 올해 무대에 올린 작품은 체코의 거장 안토니 드 보르자크(A. Dvorák)의 대표작인 <루살카(Rusalka)>이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겪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아름다운 음악과 서정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이 작품은 1901년 프라하 초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는 가족, 친구, 연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북적였다. 일찌감치 객석에 앉아 프로그램북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 관객들도 보였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관객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공연장에 속속 입장했다. 잠시 후 동화 속 숲을 연상시키는 무대 중앙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리 잡았고, 그 앞에 선 지휘자의 손끝이 움직이며 공연의 막이 올랐다.

### 아름다운 음악에 담긴 간절한 사랑

‘체코어판 인어공주’로 불리는 오페라 <루살카>는 슬라브 신화를 바탕으로 인간과 요정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물의 요정 루살카는 어느 날 호수에 나타난 왕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인간이 되어 그와 함께하고자 마녀 예지바바를 찾아간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버림받는다면 다시는 요정으로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루살카는 사랑을 위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다.





루살카를 본 왕자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 왕궁으로 데려가지만, 곧 말이 없는 그녀에게 싫증을 낸다. 결국 왕자는 매력적인 이국의 왕녀에게 마음을 돌리고, 루살카는 버림받는다. 루살카가 요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을 버린 남자를 죽여 피를 마시는 것.

그러나 그녀를 찾아 다시 호숫가에 나타난 왕자는 “당신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당신의 키스 속에서 죽으리라”고 고백한다. 결국 루살카와 왕자는 뜨거운 포옹 속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다.

‘인간 왕자’를 사랑하게 된 요정 루살카가 겪는 갈등과 고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과 희생을 담은 이야기는 드보르자크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음악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루살카의 아리아 ‘달에게 부치는 노래(Měsičku na nebi hlubokém)’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으로, 왕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절하고도 감미롭게 담겨 있다. 루살카가 물고기의 꼬리를 베리고 다리를 얹는 장면에서는 마녀 예지바바의 노래 ‘마법의 주문(Cury mury fuk)’이 흐르며 신비로움을 더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루살카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왕자는 ‘천사 같은 그대 모습(Vidino divná)’을 노래한다. 외국공주와 왕자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 ‘당신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Vám v očích divný žár se zračí)’은 무대 위를 매혹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물의 정령들을 다스리는 보드니은 루살카가 배신당했음을 알고 궁전에 찾아와 ‘루살카, 날 알아보겠니?(Rusalka, znáš mne, znás?)’를 함께 부르며 딸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다. 병든 왕자를 만난 루살카가 그와 함께 부르는 서글픈 이중창 ‘연인이여, 날 알아보겠어요?(Milacku, znas mne, znas?)’는 관객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낸 주역들

이번 공연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무대로 정평이 난 표현진 연출가가 맡아, <루살카>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지휘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아티스트이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데이비드 이(David Yi)가 맡아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이오페라코러스와 함께 드보르자크의 화려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성악가 3인이 주역을 맡아 완성도를 더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여자 성악 부문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서선영이 루살카 역을 맡아 특유의 뛰어난 음색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였으며, 같은 해 남자 성악 부문 우승자인 베이스 박종민이 루살카의 아버지 보드니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울림과 세련된 음악을 표현했다. 2023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아티스트인 테너 손지훈은 왕자 역을 맡아 탁월한 가창력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메조소프라노 과달루페 바리엔토스(Guadalupe Barrientos), 가천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메조소프라노 강은현, 그리고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소프라노 김도연, 문현주, 박성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기량을 폄쳤다.



한편 체코어라는 다소 낯선 언어로 진행된 <루살카>는 드보르자크 음악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음악회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지향하는 클래식 대중화의 발걸음이 더욱 넓어지길 바란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음악을 통해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해본다. ☺



# 2025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ETHISPHERE 2-TIME HONOREE™

## 세아홀딩스, 국내 최초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

윤리경영은 기업이 법적 책임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까지 기본 의무로 삼고, 모든 경영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아는 윤리경영을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고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길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세아홀딩스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아홀딩스가 글로벌 윤리 평가 기관인 에티스피어(Ethisphere)가 주관하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에티스피어는 2006년부터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평가해 전 세계 윤리 모범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19개국, 44개 산업에서 총 13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평가는 에티스피어 고유의 윤리 지수(Ethics Quotient®)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업들은 240개 이상의 평가 기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요 항목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거버넌스 ▲윤리 문화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공급망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한다.

제출된 자료는 전문가 패널의 정성적 분석을 거쳐 수천 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평가되며, 매년 기업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모범 사례들을 집대성한 운영 프레임워크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 수상 기업들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근 5년간 글로벌 기업 평균보다 7.8%포인트 더 높은 윤리적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세아가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세아는 앞으로도 '바르고 곧은 정직'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임직원 모두 윤리의식을 실천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티스피어 최고전략책임자 겸 이사회 의장인 에리카 살몬 벤(Erica Salmon Byrne)은 "이번 수상에는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한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직원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



## '나눔세아'가 심는 새 희망의 씨앗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내가 누리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할 때, 누군가는 읊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스스로 행복을 일궈 나갈 수 있다.  
세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15년부터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희망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락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찬이를 위해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 세아 임직원들이 함께 모은  
후원금으로 유찬이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세아기획 여러분,  
유찬이 보호자입니다. 23년 2월 복지의 추락사고로  
저희 가족은 출생과 동시에 절망적인 일상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놀란 겨우 떠난 유찬이가  
재활을 통하여 훈련이 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별이로 매달  
벌어지는 병원비다 생활비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찬이의 재활을  
이어나갈 두 암울한 고민입니다. 차에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한동을 걱정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인해 앞으로도  
희망이 많고 있고 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들게 재활에 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기획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찬이 보호자 드림



### 유찬이 가족의 반가운 균황

유찬이는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미만성 뇌 손상, 뇌출혈, 절구골절, 간 손상, 강직성 사지마비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 덕분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네 발로 기거나 조금씩 일어서는 것도 가능해졌지만, 아직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세아는 유찬이의 치료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했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529,000원을 모았다. 이 모금액으로 유찬이는 올해 3월부터 언어치료와 인지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인지능력이 많이 회복돼 한글과 숫자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보호자가 어깨나 골반을 잡아주면 조금씩 발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가능해졌고, 체간의 힘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아직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유찬이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예전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중이다.

세아 임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유찬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할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찬이 부모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사고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활에 전념하겠습니다. 세아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찬이 어머니는 손편지를 통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아이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따뜻한 응원이 모여 유찬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매칭기프트'를 통해 확산하는 나눔의 가치

한편, 세아는 '매칭기프트 제도'를 통해 세아인들이 후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 매칭으로 마련된 8,529,000원의 후원금은 유찬이와 같은 위기 아동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 중 나원이(만 4세, 여아)는 정상 발달을 하던 중, 생후 14개월에 받은 폐낭종 제거 수술 중 심정지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다.

현재 나원이는 고개를 가눌 수는 있지만 혼자 걷거나 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머스탱워커(이동 보조기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 체형에 맞는 보조기구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경제적 여건상 직접 구입하기도 어렵다 보니, 실외활동보다는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원이가 머스탱워커의 도움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정서적 만족감과 자존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아가 전하는 따뜻한 나눔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 다시 희망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세아의 나눔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석유사업 블루오션을 개척하다

세아제강  
업적상 은상 수상팀

오일샌드(Oil Sand)는 지하에서 생성된 원유가 지표면 가까이 이동하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돌이나 모래와 섞여 굳어진 원유를 말한다. 액체 상태인 일반 유전과 달리 모래 등이 붙어 있는 오일샌드는 추출과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경제성이 낮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분리 공정 기술이 도입됐고, 오일샌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캐나다 앨버타 북부 지역은 대규모 오일샌드가 매장된 곳으로, 이 자원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 유수의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오일샌드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한 세아제강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8년 10월. 그로부터 6년 뒤, 세아 업적상 은상 수상팀은 일본이 독점해온 캐나다 SAGD 파이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패거리를 이뤄냈다. 세아제강 업적상 수상팀을 만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 신시장을 열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표 75m 이내 매장된 오일샌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채굴해 분리장치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반면, 70m 이상 깊이에 매장돼 있는 오일샌드는 생산정(井)에 고온의 스팀을 주입해 지하에서 석유 성분을 녹이고, 물과 혼합된 비트umen)을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 오일과 불순물(물, 모래 등)을 분리해 추출한다. 이를 SAGD(Steam-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이라고 한다.

세아제강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캐나다 SAGD 파이프라인 시장에 주목했고, 제품개발팀, 품질경영팀, 수출1팀, 대정생산팀으로 구성된 TFT를 발족했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의 약 80%가 100~800m 깊이에 매장돼 있어 일반 채굴이 어렵다. 이에 세아제강은 기술적 요구 사항 파악부터 원재료 설계, 파이프 성형 및 용접 연구를 진행해 고객사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했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또한, 적극적인 추가 검증과 기술마케팅을 통해 소량 개발 실적에 대한 고객사의 우려를 해결하고,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상용화까지 이끌어냈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업적상 수상팀은 오랜 기간 험난한 과정을 거쳐 SAGD 파이프라인 시장 진출을 이뤄냈다. 특히 기술 개발에 있어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큰 난관으로 작용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 채굴은 주로 겨울철에 이뤄지므로, 최대 영하 45도에 이르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강한 타격을 견딜 수 있는 저온 인성을 갖춘 파이프라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온의 증기 및 슬러리(Slurry)를 이송해야 하므로 고온 인장 물성도 갖춰야 했다. 이처럼 상반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파이프라인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업적상 수상팀은 재료와 용접 조건 등 수많은 요소를 검토하고 테스트를



어렵게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끝끝내  
돌파구를 마련한 업적상 수상팀



거듭했다. 하정우 과장은 극한의 온도 조건과 복합 물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던 만큼, 설계 단계부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했다며 당시의 기술적 고민을 설명했다.

제품개발팀 김성웅 PL은 일반적으로 연구소의 역할은 개발 완료 후 자료를 고객사에 공유하는 데 그치지만, SAGD 파이프라인 제품은 2년 5개월 동안 연구와 고객사 요구 물성 검증에 매달려야 했던 제품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개발 완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10,000시간 동안 시험을 반복하며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크리프 시험(Creep Test)을 비롯해 많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라며, 그만큼 애착이 큰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위기도 있었다. 세아제강의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가졌던 고객사들이 최소 3 Heat(750~1,250톤)의

실적을 요구한 것이다. 주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원재료 수급도 불가능했다.

박형우 차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고온 인장 물성 변화에 대한 고객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사에 직접 찾아가 추가 분석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죠. 이후 고객사의 신뢰를 얻어 최초의 시험 주문(Trial Order)을 수주했고, 3 Heat의 실적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렵게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끝끝내 돌파구를 마련한 업적상 수상팀. 이후 다시 캐나다를 방문한 업적상 수상팀은 현지 7개 오일샌드 관련 업체를 찾아 개발 결과와 3 Heat 양산 실적, 테스트 데이터를 공유했고, 결국 추가 주문 수주와 상용화를 함께 달성했다.

## 협력과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



처음 발을 내딛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였기에 어려움은 예견하고 있었지만, 돌아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권진우 전문직팀장은 처음 생산하는 제품이었던 만큼 최적의 성형 조건과 용접 조건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관련 부서들의 도움으로 원만히 해결해 납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20~24" 고강도 후유 파이프라인의 경우 제품 성형 및 용접 과정에서 용접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불량 발생의 우려가 많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소의 도움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SAGD 파이프라인 개발은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협업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였다. 김윤동 대리는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각 부서의 진행 상황과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반영하는 것이 이번 성과의 중요한 열쇠”였다고 설명했다. 업적상 수상팀은 정기적인 회의와 비정기적인 현안 점검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원 모두가 ‘우리의 일’이라는 공동 목표 의식을 가진 것이 이번 성과를 이룬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SSA 캐나다 사무소 유재천 소장의 적극적인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오규섭 전문직팀장은 “개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고객사 미팅 주선은 물론,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 까지 현지에서 세심하게 지원해준 유재천 소장에게 감사하다”면서 업적상 수상팀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

## 새로운 기회도 성과로 만들어낼 협력

김성진 과장은 일본이 독점하던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것은 세아제강의 뛰어난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세아제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향후 세아제강의 수출 증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캐나다는 오일샌드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많은 국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CO<sub>2</sub> 이송용 파이프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설계는 SAGD 팀이 주관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이 사업의 공급 후보업체로 선정돼 추가적인 시장 기회를 확보했다. 현재 업적상 수상팀은 해당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장에서 세아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김종민 팀장은 이번 성과를 돌아보며 당시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영어 발표를 위해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자고 발표 대본을 외우던 하정우 과장, 최초 적용한 용접재료가 모재부강도보다 낮아 처음부터 다시 용접재료를 개발하느라 고생했던 김성진 과장, 생소한 용접재료로 밤낮 없이 스팀 파이프 생산에 매달렸던 박형우 공장장과 대경생산 팀장들, 벤더승인을 받고 감격에 울먹이던 SSA 캐나다 유재천 소장까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세아제강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장 개척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세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SAGD 파이프라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팀원들의 뛰어난 실력과  
열정적인 노력이  
성과를 이룬 동력이었습니다.**

경쟁력을 입증해낸 세아제강 업적상 은상 수상팀의 성과가 말해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세아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다. ☺



## 나를 들여다보는 대련의 힘

세아창원특수강 P1팀 전재현 대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는 검도. 호구를 착용한 채 기다란 칼을 들고 예를 갖춰 상대와 대련하는 검도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운동이다. 세아창원특수강 P1팀 전재현 대리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검도장에서 엄숙한 대련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 검도와 함께 한 15년

2017년 세아창원특수강에 입사한 전재현 대리는 맙은 바를 묵묵히 해내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다. 팀 내에서도 성실 함으로 신뢰를 얻고 있으며, 회사 밖에서도 자신의 삶에 꾸준히 집중하며 하루를 채워간다.

회사 안에서는 조직이 요구하는 프레임과 역할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의미를 찾는다는 전재현 대리.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자신만의 루틴과 일과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도 수련도 그 중 하나다.

“하루 업무가 고되지만, 그럼에도 퇴근 후 검도장을 찾아 검도복을 입고 호구를 착용하면 알 수 없는 힘이 다시 생겨나요. 칼을 들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으로 상대방과 대련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저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전재현 대리가 검도와 함께한 시간도 어느덧 15년이다. 그는 “옆집 친구가 커다란 검도 칼을 차고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 같다”며 검도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운을 뗐다.

“마음속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 아버지





께서 검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꾸준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검도 수련은 보통 약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진다. 보호구를 모두 착용한다 해도, 칼을 들고 상대 선수와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검도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힘을 길러주며, 그 과정에서 결단력을 얻게 한다.

#### ‘예시예종(禮始禮終)’,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다

“격투 종목마다 보니 상대를 겨우로 치거나 제가 맞기도 하지만, 공격과 수비가 검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경기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춰야 하죠. 예를 갖추지 않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득점을 해도 검도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도는 ‘예시예종(禮始禮終)’, 즉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나는 수련이라 한다. 예를 갖추고 내 앞에 놓인 상대와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도의 본질이다.

빈집한 마음이 들 때면 전재현 대리는 검도장을 찾아 홀로 수련하거나 상대 선수와 대련에 임한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눈앞에서 상대 선수가 검을 겨누는 장면을 마주하면 머릿속을 맴돌던 추상적인 문제들이 한순간에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전재현 대리는 자신이 그 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상대 선수와 대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자세도 무너지며 결국 스스로 흔들리게 되죠. 검도는 그 와중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수련이에요. 그게 가장 어렵지만 해냈을 때 비로소 대련의 시간을 온전히 견딜 수 있기에, 검도를 마치고 나면 내면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검도에는 ‘조심해야 할 네 가지’, 사계(四戒)가 있다. ‘경구의 혹(驚懼疑惑)’이라 불리는 이 네 가지는 수련 중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내면의 방해 요소들이다. ‘경(驚)’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놀람, ‘구(懼)’는 상대의 체격이나 기합소리로 인한 두려움, ‘의(疑)’는 대련 상황에서 의심이 생겨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 ‘혹(惑)’은 방황하는 마음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수련에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로 이어진다고 전재현 대리는 말한다.

#### 지도자 과정을 목표로 쌓아가는 대련의 나날

“검도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복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력도 향상되고, 수 싸움에도 훨씬 능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복기가 끝나면 묵상을 통해 제 동작과 판단, 그리고 선택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재현 대리는 검도 수련이 자신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대련 후 복기를 하면서 상대와의 거리감을 되짚어보고, 자신이 과하게 뜨겁거나 지나치게 차갑지는 않았는지, 관계 속에서의 균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올해 안으로 5단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퇴 후 자신만의 도장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우선 사범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수련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검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마 이 운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온 것 같아요. 검도는 생각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운동이에요.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끊임 없이 싸워야 하는 수련이죠. 그렇기에 제가 수련한 만큼 기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 운동의 큰 장점입니다.”

검도에는 ‘수파리(守破離)’라는 개념이 있다. ‘기본을 충실히 익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경지에 올라 스스로의 새로운 경지를 깨우친다’는 의미다.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검도를 통해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났다는 전재현 대리는 검도가 자신을 바꾼 부분도 있지만, 함께 운동한 사람들로 자신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존재였다고 말한다. 그는 경우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것이 가장 값진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그 배움 안에서 검도의 정신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



달콤쌉싸름한  
마성의 맛  
달고나



달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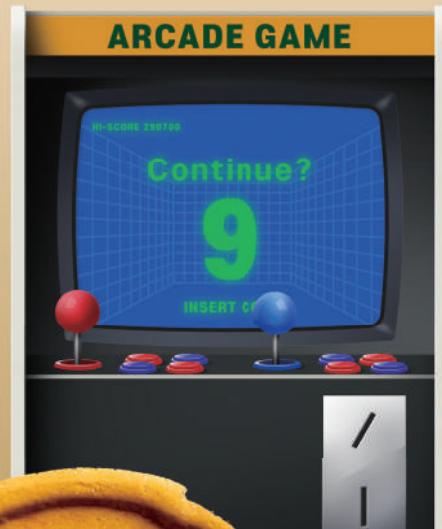
윤기 나는 황토색 납작한 과자 위에  
세모, 별, 우산 같은 모양이 새겨져 있다.  
모양이 화려할수록 오히려 먹기 어렵고,  
선명할수록 쉽게 떨어지기도 한다.  
표면에 하얀 설탕가루까지 뿌려져 있어야 제맛이다.

정답은 바로 ‘달고나’.  
1950년대에 등장해 먹을거리가 변변치 않던 시절,  
아이들의 소중한 간식거리로 사랑받았던 달고나는  
이제 세대를 나누는 상징이 됐다.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먹어 본 사람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달고나를 처음 맛본  
사람으로 말이다. 세대 차이를 넘어 추억을  
공유하게 만든, 오늘날 공감의 아이콘이 된  
달고나 이야기를 담아본다.



달구나! 달고나!

달고나, 이름부터 참 예쁘다. ‘달구나’라는 감탄사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정말 다디단 과자, 혹은 사탕이다. 매체의 영향이 크지 않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었다. 수도권에서는 ‘뽑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띠기’, 경북은 ‘국자’, 경남은 ‘쪽자’로 불렸고, 부산에서는 부풀어 오른 모양과 색이 닮았다고 해서 ‘뚱과자’라 부르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어쩌다 달고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한국전쟁 당시 부산항으로 들어온 원조 식량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질뿐이다.

달고나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이다. 설탕과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된다. 설탕에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를 넣고 국자에 담아 저으며 가열하면 끝. 캐러멜처럼 녹아들면 철판에 부어 납작하게 누른 뒤 모양틀을 찍으면 완성이다.

1960년대 초반에는 설탕 대신 포도당 블록을 사용하거나, 설탕에 포도당과 소다를 섞어 만들기도 했지만 1960년대 중반 설탕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부분 설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달고나가 대중화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신기한 것은 재료라고는 설탕과 베이킹소다가 전부인데 맛이 다채롭다는 점.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고소하면서도 쌈싸름하고 약간의 신맛까지 난다. 이는 달고나를 만들 때 설탕이 옆에 녹으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캐러멜화’ 반응 때문이다. 이때 생기는 복합적인 향과 맛이 달고나의 매력이다. 특히, 연탄불에 만들면 그 맛이 배가된다. 국자와 연탄불은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다.

## 그 시절, 달달한 추억

“돌덩이 같은 하얀 달고나를 국자에 넣고 연탄불에 둘러앉아 녹여서 거기에 소다를 약간 넣으면 부풀어 오르던 그 하얗고 달콤하고 포슬한 그 맛.”

- 소설가 공지영,『봉순이 언니』

작품 속 식모살이를 하는 주인공 소녀는 달고나를 이렇게 묘사한다. 달고나는 작품 속에서 1960년대 후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등장한다.

1980년대생에게도 달고나의 추억은 선명할 것이다.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나 만화가게, 오락실 근처에서 사 먹던 달고나는 100원 이상의 행복을 선사하곤 했다. 친구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하얀 설탕이 녹아 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은 설레는 구경거리였다.

삼각형이나 나비, 하트, 십자가, 우산 등 다양한 모양이 찍힌 달고나는 음식이면서 놀잇감이기도 했다. 모양을 깨지 않고 잘 떼어내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었기에, 초집중하며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경계선에 침을 묻히는 등 나름의 기술도 존재했다. 어느 동네, 어떤 가게냐에 따라 허용되는 ‘만직’의 기준도 달랐다. 그만큼 달고나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 ‘오징어 게임’이 만든 히트작

달고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이후 ‘힙한 간식’으로 재조명 받았다. 사라져 가던 달고나 노점이 다시 거리로 나왔고, 국내의 한 이커머스에서는 달고나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 장면과 함께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판매됐다. K-콘텐츠의 인기가 K-푸드의 인기로 확산된 것이다.

달고나 만들기 키트는 캠핑족 사이에서도 인기 아이템이다. 별이 쏟아지는 캠프장에서 모닥불 앞에 앉아 만들어 먹는 달고나라니, 상상만으로도 낭만적이다.

SNS에서는 '#DalgonaChallenge' 해시태그로 달고나 만들기 영상이 유행처럼 번졌다.

달고나는 다양한 음식과의 콜라보로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커피와 설탕을 물에 넣고 400번 이상 저은 뒤, 우유를 부어 만드는 ‘달고나 라테’였다. 이후 달고나 밀크티, 달고나 사탕, 달고나 팝콘, 달고나 쿠키, 달고나 견빵 등 수많은 달고나 제품이 등장하며 무궁무진한 변신 중이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신선힘을 일으키며 제2의 전성시대를 달리고 있는 달고나. 세대와 국경을 아우르는 그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신선힘을

제2의 전성시대를  
달리고 있는 달고나

한편, 올 1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Dalgona)’를 포함한 한국어 단어 8개가 새롭게 등재됐다. 사전은 달고나를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더해 만든 한국의 과자”라고 소개하며, “일반적으로 길거리 상인들이 판매하며 납작한 원판 표면에 하트나 별 등을 새긴 모양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 속 주인공의 절실히 만큼은 아니지만, 달고나는 지루한 일상에 짜릿한 재미를 선물한다. 음식과 놀이가 만나는 절묘한 접점, 단연こん대 달고나는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전 세계인의 문화 콘텐츠다. ♥

Dalgona Challenge





##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세아원드

미들즈브러(Middlesbrough)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티사이드(Teeside)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도시 북쪽으로는 티스(Tees)강이 흐르며, 인근에는 티스워크(Teesworks)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2백 40만 평 규모의 이 산업단지는 영국 2위 철강업체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이 150년 이상 제철사업을 이어오던 곳으로, 2015년 문을 닫으며 3천여 명의 실업자를 낳는 등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2020년 영국 정부와 티사이드지역개발공사는 영국 산업 혁신의 중심지인 티스워크를 설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 산업단지 내 약 11만 평 부지에 3만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인 세아원드(SeAH Wind)의 소식을 들어본다.

### 공장 건설과 멀거리 창출에 한창인 세아원드

세아제강지주 영국법인인 세아원드는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영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영국 및 유럽 시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장 준공을 앞두고 건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세아원드의 소식을 손성활 대표이사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1995년 SeAH Steel America에 입사해 회계, 관리, 영업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이후 STS 영업 담당 임원을 거쳐 2022년 세아원드로 합류한 뒤, 프로젝트 디렉터를 역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세아원드의 조직은 플랜트 부문(Plant), 영업 부문(Commercial), 사업 관리 부문(Business), 경영 부문(Management), 그리고 공장 건설을 전담하는 Engineering TFT로 구성돼 있다. 현재 240여 명의 현지 직원과 20명의 한국주재원이 근무하며, 유럽 해상풍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손성활 대표이사에 따르면, 플랜트 부문은 약 150명의 생산 직과 엔지니어로 구성돼 상업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지 인력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업 부문은 이미 두 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이다. 이어서 사업 관리 부문은 주재원과 현지 인력이 함께 참여해 회사 운영과 공장 건설 관련 지원 활동을 맡고 있으며, Engineering TFT는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설비 관리팀, 시설 인력들이 협업해 영국 현지에서 모노파일 공장의 건설과 설비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세아원드는 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건설 추진과 생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아원드가 생산하는 모노파일은 기존의 재킷식 구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유리하며, 주로 30~50m 깊이의 해역에 사용된다. 세아원드는 세계 최대 수요시장인 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최대직경 15.5m, 길이 130m의 세계 최대 규모 모노파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아원드-바텐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 체결

## 주목받는 산업, 주목받는 세아원드

세아원드는 2022년 9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인 오스테드(Orsted)로부터 세계 최대 풍력단지인 ‘혼시(Hornsea) 3’ 프로젝트 중 일부를 수주한 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인 바텐폴(Vattenfall)과 ‘노폭 뱅가드(Norfolk Vanguard)’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7년 상반기까지의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도 여러 고객사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아원드는 영국 내 유일한 모노파일 공급업체이며, 세계 최대 모노파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넘어 북미 시장까지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아원드는 지역 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약 3년에 걸쳐 1,000여 개의 건설 일자리와 6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아원드가 영국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손성활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월 13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티사이드 지역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세아원드 공장을 직접 찾았다. 찰스 3세 국왕은 모노파일 제조용 장비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세아원드의 역할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아원드 착공식

손성활 대표이사는 “티스워크에서는 해상풍력을 비롯해 탄소포집 및 수소생산을 위한 넷제로(Net-Zero)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여러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인력들을 응원하기 위해 티스워크 지역을 방문한 찰스 3세 국왕은 세아원드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찰스 3세 국왕의 방문은 세아원드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고, 영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 내 세아원드가 지닌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아원드의 도전

물론 낯선 환경과 제도, 문화 차이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세아원드 임직원 모두는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아직 예전 공법을 고수하는 엔지니어들도 많아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이사는 유럽의 경우 한국과 달리, 사전 점검과 안전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건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북해 특유의 혼난한 날씨는 고공 작업이 많은 세아원드 공장 건설에 큰 도전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완공을 앞둔 세아원드 공장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냈다.

공장이 완공되면 단기적으로 상업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아원드 착공식

첫 프로젝트인 혼시 3 제품을 고객사에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 이후 두 번째 프로젝트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물량의 단일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연간 40만 톤 수준의 모노파일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세아원드의 단기 목표다.

손성활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생산 안정화 및 최적화가 이뤄지도록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점검해 최적의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현재는 본사로부터 기술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노파일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저지하는 전 인류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아원드는 해상풍력 산업



세아원드 영국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모노파일 공장 조감도

밸류체인의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계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세아원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향해 나아갈 이들의 여정에 응원을 보낸다. ●



### 손성활 대표이사가 전하는 영국은 지금 영국 내 한국음식의 인기

영국은 딱히 대표적인 음식이 없고 식당들도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과자류도 맛이 특별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들의 수입과자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 내에서도 한국음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같은 가공식품들이 웬만한 슈퍼마켓의 매대에서 고정적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며, 김치를 샐러드처럼 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런던과 같은 글로벌 도시에는 이미 많은 한식당들이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최근 한영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찰스 국왕이 한인타운 내에 팝빙수 전문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 중 ‘치킨 티카 마살라’가 있는데 이는 영국 전통음식이 아니라 영국에서 창조(?)된 인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음식이 치킨 티카 마살라의 자리를 대체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이 흐름 속에서 세아원드 역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한때의 불운이 실은 행운이었고,  
장애물은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길잡이였음을  
깨닫곤 한다.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라  
개발로부터 소외됐던 ‘곶자왈’의 과거 또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버려졌기에 지켜질 수 있었던 생명의 숲,  
곶자왈을 만나러 제주로 향했다.

자연,  
그 불규칙함  
속의  
아름다움

제주 곶자왈



### 제주만의 숲

여러 번 발걸음해도 같 때마다 낯설 만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제주. 그건 아마도, 육지와는 사뭇 다른 이름다움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화산섬이라는 점이다. 다섯 차례에 걸친 한라산의 화산 분출은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지질을 빚어냈고, 그 속에서 한라구절초, 제주달구지풀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자생식물들이 자라게 됐다.

‘곶자왈’은 제주어로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널려 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을 뜻한다. 화산활동 중 분출된 용암이 만들어낸 이 암괴지대에는 나무와 덩굴식물이 우거지고, 곳곳에 습지가 형성됐다. 용암지대는 토양이 발달하기 어렵고, 표층부터 심층까지 암석이 깔려 있어 지금처럼 숲이 자라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곶자왈이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의 동서 방향을 따라 분포돼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보전 상태가 양호한 네 곳-서부의 한경-안덕 곶자왈, 애월 곶자왈, 동부의 조천-함덕 곶자왈, 구좌-성산 곶자왈-을 제주의 4대 곶자왈이라 부른다.

###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탐방

이번 여행에서 찾은 곳은 한경-안덕 곶자왈에 속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곶자왈의 생태를 보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휴양, 체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관광지다.

신평에서부터 보성리까지 이어지는 일대 154만m<sup>2</sup>의 광활한 공원 안에는 총 6.5km 길이의 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탐방로는 테우리길, 가시낭길, 한수기길, 오찬이길, 빌레길 등 5가지 코스로 나뉘며, 코스별 예상 소요 시간이 안내돼 있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탐방안내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 가볍게 몸을 훈 뒤 트레킹을 시작했다. 구두나 샌들처럼 앞이 트인 신발, 키높이 운동화는 탐방이 금지되며, 벌레와 기온차를 고려해 여름에도 긴팔 옷차림이 권장된다.

탐방로에 들어서자 울창한 상록활엽수들이 펼을 스칠 듯 가까이 다가온다. 종종 데크길 한가운데 뚫어 놓은 구멍 사이로 자라는 나무도 눈에 띈다. 길 너비가 좁은 것도 숲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배려다. 나무의 성장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조성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곶자왈은 다양한 식물상을 이루고 있는데, 한정된 영역의 토지에서 많은 지형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지질과 지형의 특성 덕분에 주변 지역에 비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기후를 띠는데, 이는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공원 내에는 10m 안팎의 종가시나무가 높은 밀도로 서식하며, 높나무 등 상록수가 사계절 내내 울창하게 뻗어 있어 늘 푸름을 간직한다. 특히 제주에 분포한 개가시나무 대부분이 이곳 곶자왈에 모여 있다. 이 숲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으름난초, 순채, 제주 물부추 등이 자생하며,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같은 제주텃새부터 긴꼬리딱새, 팔색조 같은 희귀 철새들까지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덩굴에 휘감긴 채 제멋대로 가지를 뻗어낸 나무들 주변에는 양치식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콩짜개덩굴과 덥수룩한 이끼, 오래전 떨어진 낙엽들이 어수선하게 뒤엉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온전한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온다.

**길 너비가 좁은 것도  
숲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배려다.**





새들의 지저귐에 이파금 대답을 건네며 걷다 보면 곳자왈 전망대에 도착한다. 15m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절반은 푸른 허늘, 절반은 초록 숲이 맞닿은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게 하는 풍경이다. 군산오름, 월라봉, 산방산, 바굼지오름, 모슬봉, 가시오름 등 곳자왈과 맞닿은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공물이 배제된 '순수 자연'을 감상하는 이 시간은,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풍경이기에 오래 머물러도 전혀 아깝지 않다.

#### 작은 포구의 장엄한 일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의 제주 서쪽 해안에는 자그마한 자구내포구가 있다. 한치와 오징어로 유명하며, 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인 차귀도로 향하는 배편이 있는 작은 항구다. 특히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이 아름다워 일몰 명소로 손꼽히며, 사진 작가들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

포구 옆 길가, 해풍을 맞으며 나란히 매달려 있는 오징어들 너머로 금빛 바다가 잔잔히 일렁인다. 그 위를 바삐 지나가는 어선은 자연에 기대어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듯하다.

포구 가까이에는 수월봉이라는 오름이 있다. 해발 77m의 수월봉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며 생겨난 수월봉의 단면에는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뚜렷한 층리가 형성돼 있다. 폭발 당시 날아와 박힌 크고 작은 암석들은 저마다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절벽을 따라 난 탐방로를 걸어 다시 포구로 돌아왔을 때, 일몰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금빛이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차귀도의 윤곽은 점점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바삐 셔터를 눌렀다.

매일 반복되는 바다의 일몰이지만,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장엄하다. 나를 압도하는 순수한 자연의 힘에,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나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



#### TIP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코스



**빌레길 0.9km(20분)**  
한수기오름 입구에서  
우마금수장으로 이어지는 길

**오찬이길 1.5km(30분)**  
신명리 마을공동목장 관리를 위해  
만들었던 길

**테우리길 1.5km(30분)**  
지역주민들이 농사짓기 위해  
만들었던 길

**한수기길 0.9km(20분)**  
지역주민들이 농사짓기 위해  
만들었던 길

**가시낭길 2.2km(왕복구간/45분)**  
원형 그대로의 곳자왈 특이지형인 길

#### 1 코스(1 course)

코스 : 탐방안내소 – 테우리  
길 – 전망대 – 테우리길 –  
탐방안내소  
거리 : 1.8km  
시간 : 40분

풍욕 및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는 테우리길을 지나 곳  
자왈 전망대 15m 높이에서  
곳자왈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코스이다.

#### 2 코스(2 course)

코스 : 탐방안내소 – 테우리  
길 – 한수기길 – 빌레길 –  
전망대 – 테우리길 – 탐방  
안내소  
거리 : 3.8km  
시간 : 80분

문화 유산인 숫을 굽던 장소  
(숯굽제)와 우마금수장 등이  
있는 빌레길과 용암 및 화산  
지형 관찰을 통해 지질학습  
을 할 수 있는 한수기길, 풍  
욕 및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는 테우리길로 구성된 코  
스이다.

#### 3 코스(3 course)

코스 : 탐방안내소 – 테우리  
길 – 전망대 – 오찬이길 –  
빌레길 – 전망대 – 테우리  
길 – 탐방안내소  
거리 : 4.0km  
시간 : 90분

개가시나무, 애기뿔소똥구  
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  
생동식물을 볼 수 있는 오찬  
이길과 문화 유산인 숫을 굽  
던 장소(숯굽제)와 우마금수  
장 등이 있는 빌레길, 풍  
욕 및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  
는 테우리길로 구성된 코  
스이다.

#### 4 코스(4 course)

코스 : 탐방안내소 – 테우리  
길 – 가시낭길 – 한수기길 –  
– 오찬이길 – 전망대 – 테  
우리길 – 탐방안내소  
거리 : 4.5km  
시간 : 100분

오찬이길에서는 난대림과  
곶자왈 본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시낭길, 용암 및  
화산 지형 관찰을 통해 지  
질학습을 할 수 있는 한수  
기길, 개가시나무, 애기뿔소  
똥구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볼 수 있는 오  
찬이길로 구성된 코스이다.

#### 5 코스(5 course)

코스 : 탐방안내소 – 테우리  
길 – 가시낭길 – 한수기길 –  
– 오찬이길 – 전망대 – 테  
우리길 – 탐방안내소  
거리 : 6.7km  
시간 : 150분

치유와 명상의 테우리길과  
곶자왈 본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시낭길, 용암 및  
화산 지형 관찰을 통해 지  
질학습을 할 수 있는 한수  
기길, 개가시나무, 애기뿔소  
똥구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볼 수 있는 오  
찬이길로 구성된 코스이다.

## 세아베스틸

### '안전 그라운드 룰' 선포식 개최



세아베스틸은 3월 18일 군산공장에서 '안전 그라운드 룰 선포식'을 개최하며, 안전문화 조성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그라운드 룰'을 정식 도입했다.

'안전 그라운드 룰'은 임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518건의 제안 중에서 선정해 수립됐으며, 기본 안전 수칙(5개), 공통 작업 안전(10개), 공정별 안전 수칙(10개)으로 구성됐다. 선포식에서는 노사 공동 선언문 낭독, 배지 체결식, 안전 담금札 작성 등이 진행됐으며, 이후 공장 내 포스터 부착과 캠페인 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안전 그라운드 룰'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과 파트너사가 한마음으로 안전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세아씨엠

### 독거어르신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세아씨엠 봉사단은 지난 3월 26일,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독거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주거 공간을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고, 세아씨엠 봉사단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아씨엠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과 복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길 가꾸기'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세아씨엠은 지난 3월 18일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모두의 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을길 가꾸기' 플로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과 지역 주민활동기들은 미성동 지역을 순회하며 도로, 공원, 주택가의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을 정화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기업이 협력해 마을 환경을 가꾸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한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 세아창원특수강

### 창립 59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3월 17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강당에서는 창립 59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직원을 비롯해 주요 고객사와 공급사, 협력사 관계자들이 함께 해 세아창원특수강의 59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서는 우수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모범 사우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그간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경남 리틀싱어즈의 청아한 합창과 팝페라 가수 성기현의 축하 무대가 이어져 기념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 세아특수강

###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장애인 활동농장 농촌 봉사활동으로 ESG 경영 실천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은 지난 3월 12일 장애인 활동농장을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포항공장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농작물 수확과 분류 작업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몸소 실천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활동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세아특수강은 이번 활동 외에도 연탄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 세아제강

### 포항공장 사무기술직 대상 안전보건집합교육 실시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지난 3월 사무기술직 사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항공장 5대 안전 철칙 ▲작업 · 공사별 안전 작업 수칙 ▲응급의료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지침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아제강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세아제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우동정

### 세아제강지주

#### 출산

오한종 재경팀  
고은비 준법경영팀  
이상현 북경사무소

### 세아제강

#### 입사

김창섭 기계정비반(포항)  
주혜림 STS내수팀  
공희진 DX팀

#### 결혼

김상중 STS내수팀

#### 출산

최한결 생산팀(순천)  
기영준 구매1팀  
최재현 안전환경팀(포항)  
허정은 자금팀  
김성진 제품개발팀(포항)

#### 조의

이석도 소경2공장(포항)  
(부친)  
박찬의 품질경영팀(창원)  
(부친)

### 세아베스틸지주

#### 입사

이지현 디지털전략팀  
구본근 디지털혁신팀 선임  
진우정 대구영업소 책임  
민경현 선재생산팀 열처리  
(포항)

### 세아베스틸

#### 결혼

김호진 대형압연팀  
최우영 단조설비팀  
박우기 경영기획팀

#### 출산

박재승 1제강팀  
양승민 소형압연팀

### 조의

김성태 2제강팀 (부친)  
윤영식 단조생산팀 (모친)  
박형준 단조기술팀 (모친)  
장영수 창녕공장장 (부친)  
최현구 연주팀 (빙모)  
김규현 품질경영팀 (빙모)  
조재선 품질보증팀 (빙모)  
김종혁 품질보증팀 (빙부)

### 세아씨엠

#### 결혼

박문성 구매팀  
이지민 생산팀 3CCL  
홍성재 기계정비반  
이종혁 품질경영팀

#### 출산

이승훈 전기정비반  
유성현 CGL  
김민호 생산팀 3CCL

#### 조의

최민호 3제강팀 (모친)  
김성주 기공팀 (모친)  
강 영 2제강팀 (빙부)  
안춘환 설비기획팀 (빙부)

#### 조의

최석도 소경2공장(포항)  
(부친)  
이의태 중국사무소 (빙부)  
박주환 CS팀 (빙부)

### 세아M&S

#### 입사

장승준 생산팀  
김수은 지원팀  
정상원 생산팀

#### 결혼

최윤성 생산팀  
정해찬 기술연구소

#### 조의

윤태웅 생산팀 (부친)

### 세아항공방산소재

#### 결혼

김수민 기공반

#### 출산

안경환 가공반

#### 조의

추상수 압출반 (빙모)

## 세아 L&S

### 입사

이천양 재경팀  
김학수 군산물류팀  
이자연 서울강관영업팀  
염태현 특수강물류파트

### 출산

이동욱 포항물류팀  
김성대 서울판재영업팀

### 조의

조금호 당진공장  
(빙부 · 모친)

### 세아네트웍스

### 입사

김종욱 전략사업부문  
최성수 사업전략팀  
남범희 주니어인재  
서주희 주니어인재  
정 준 주니어인재

### 조의

김종욱 전략사업부문  
(부친)

### 입사

장승준 생산팀  
김수은 지원팀  
정상원 생산팀

#### 결혼

최윤성 생산팀  
정해찬 기술연구소

### 조의

윤태웅 생산팀 (부친)

### 세아항공방산소재

####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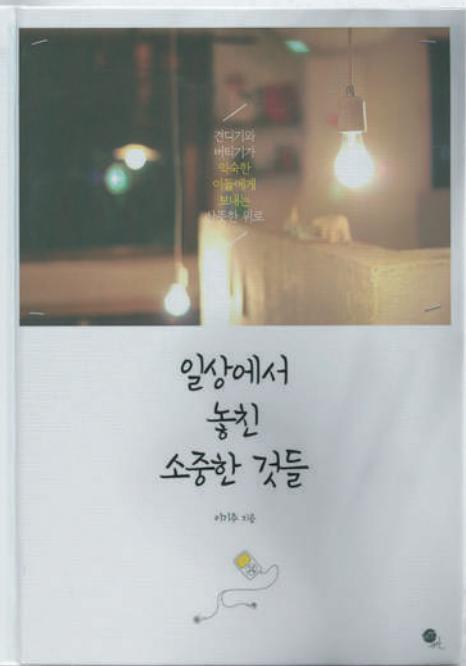
김수민 기공반

#### 출산

안경환 가공반

#### 조의

추상수 압출반 (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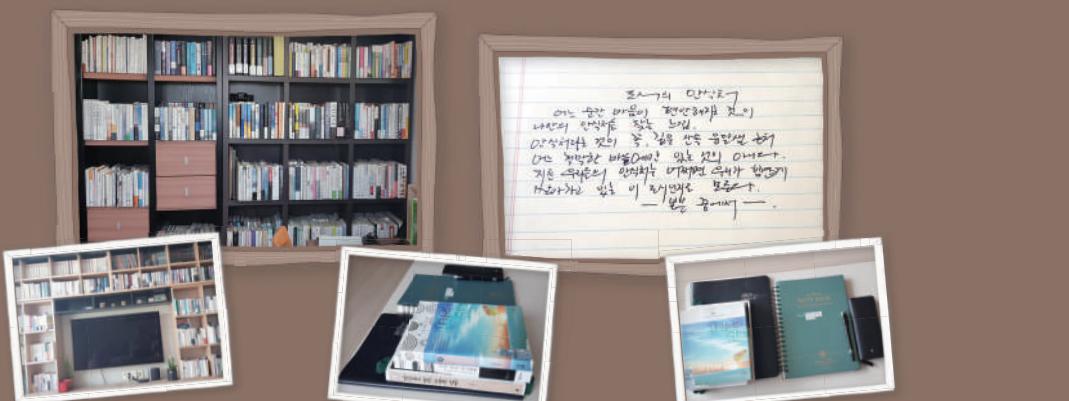
## 일상에서 놓친 소중한 것들

저자: 이기주

### [추천 메시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과 몸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전디기와 버티기에 익숙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아베스틸 대형압연팀 이엄구 기감



### 참여 방법

- ①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나 책장, 독서 환경을 촬영한다.
- ② 감명받은 책 속 한 구절을 필사한 후 사진으로 남긴다.
- ③ 책 제목, 저자, 추천 이유를 100자 내외(3행 내외)로 작성한다.
- ④ 위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이메일(sujin.hwang@seah.co.kr)로 전송한다.
- ⑤ 'Best 텍스트 힙 Reader'로 선정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 〈세아가족〉 사보 기자

-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이해연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세아베스틸자주 지원팀 김명제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박수빈  
세아특수강 인사팀 변훈규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세아 L&S 인사팀 김예슬  
세아네트웍스 조직문화팀 박수정  
브이엔티지 EX실 강근희

